



김정학

- 경남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제18기)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現) 법무법인 에이스

## 사법부 신뢰회복의 길

사법부는 3권 분립의 구성원리 상 국민이 뽑은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이와는 다른,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집단이 이 역할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는 고려 하에 구성된 생래적 특성이 있다.

그리하여 헌법에도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래적으로 여론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국민이 헌법적 결단으로 받아들여 사법부에 그 신성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법부가 여론으로부터 독립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역할에 위배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사법부 불신 운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는 정치권, 사회지도층,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법관의 판결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매도하고, 여론을 오도해 가며, 진영논리에 빠진 많은 국민들은 어떤 검증이나 사례 없이 말초적인 집단 괴롭힘으로 효과를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다. 참으로 우습게도 지닌 소신과 성실성과 자질에 변함이 없는 같은 판사가 내린 판결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의 이해에 부합하면 그지없이 칭찬하다가 그 후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하게 되면 언제 칭찬한 적이 있느냐는 듯이 비난을 넘어 힐난하면서도 조금도 모순을 느끼기는커녕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이런 사태 하에서 오도되고 부풀려진 국민의 다수 의사인 여론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법부 신뢰

를 운운 한다면 이는 위에서 말한 태생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하는 사법부 본연의 모습을 정치적 목적 하에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관철시키려고 여론을 조작해 놓고도 국민주권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삼권분립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행위이다. 어떤 이유로도 이러한 비민주적 범죄행위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이 충실하게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법행정은 본래의 모습인 재판 보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 구성원들인 법관이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훌륭히 재판할 여건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법부의 불신 여부를 거론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충분하고 통렬한 반성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재판의 충실도와 정의로움의 문제이다. 언제부터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 사이에 큰 의문과 실망이 발생하여 사라지지 않고 이제껏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법관들도 오래전부터 심각성을 인식하고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대법원장으로 부터도 기회 있을 때 마다 당부를 받은 사항이다. 그동안 재판의 투명화, 의혹해소 차원에서 실질변론의 활성화, 전 관예우 의혹 해소를 위해 법정 외 변론 금지, 변호사와의 전화통화 녹음, 변호사와의 회동 금지, 혈연·학연·지연 등에 의한 사건 기피 등 할 수 있는 수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물론 더 찾아보면 더 노력해야 할 분야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사태는 오랜 기간 법관들에게 고통을 요구하면서도 별 소득이 없이 현재진행형이어서 법관들은 오

히려 의기소침해지고, 자존감조차 잃어가고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오도된 여론에 의하여 형성된 사이버 사법부 불신인 점이 다분하므로 위와 같은 순수한 의도의 처방이 통할 리 없다. 재판하는 법관들만 괴롭히고 이는 또 재판의 불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다음으로 사법행정의 문제이다. 원래 사법부는 재판을 하는 곳이고, 따라서 사법행정은 재판을 잘 보좌하는 것이 그 본래의 소명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재판을 잘 보좌한다는 명분 아래 법관의 독립성을 애써 망각한 채 재판에 간섭하기 시작하더니 익숙해지자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권력이 되었다. 그리하여 법원행정처에 밀실적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지배계급이 되어, 묵묵히 일선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하찮게 보는 풍조가 생기고 나아가 그들만의 세력을 형성하여 고등부장 등으로의 승진에서 특혜를 누렸다. 나름 우수하다는 인재들이 실제의 재판을 앓고 행정을 하면서 탁상으로 재판지휘를 하고 일선 법관들의 고충어린 현장의 충언을 오만하게도 능력부족으로 무시하는 내심을 읽을 수 있었다. 재판을 잘하는 법관이 아닌 행정을 잘 하는 법관이 잘 나가는 사법부는 불신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법원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 바람은 오랫동안 끓은 곳이 터져서 치유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하여야 하고 정해진 뚜렷한 절차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가지 장애와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고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근본 취지는 애써 외면한 채 과정에서 일어난 지엽

적 의견대립을 들어 사법부가 내부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분쟁에 휘말리는 그런 무능한 존재로 치부하면서 사법부 불신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스스로 모순을 제거하고 자정하고 자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룰을 만들어 가면서 홀로서는 과정을 밟고 있는 사법부에 대하여 오히려 격려하고 박수를 쳐야 할 일이다. 분명 사법부는 본래의 재판 기능이 최상의 기능으로 되살아 나는 환골탈퇴의 과업을 이루어 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관의 자존감, 자부심과 근무여건의 문제이다. 오래전부터 이미 법관들은 대통령, 국회와 달리 국민적 정당성을 얻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법부로서는 그 존립의 기초가 국민의 신뢰에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구상하고 실천 중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사이버 사법불신에 계속하여 시달리면서 지쳐있고, 자부심은 커녕 자존감마저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어떤 이성적이면서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 요구하면서 이를 지키면 더 이상 불신하지 않겠다고 제발 선이라도 그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판의 부실로 이어져 불신을 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되고 이는 또 사법부 불신을 일으키는 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두렵다.

또 법관들은 수많은 사건에 과묵히 야근을 밥먹듯이 하고 있다. 원활한 재판을 위한 법정 등물적 시설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법관들은 사명감으로 묵묵히 주어진 임무를 본래부터 나의 임무 인양 책임있게 수행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은 물론 법원행정처에서 조차 사건을 신속하게·친절하게·충실하게·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닥달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비난이다. 이런 여건에서 누가 대신 와서 한번 해보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만약 거뜬히 이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릎 꿇고 백배 사죄하고 나의 무능에 대한 어떠한 힐난이라도 감수하겠다.

드디어 사법부 신뢰회복의 길이 무엇인지 말해야 할 지점에 도달한 것 같다. 그러나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 글을 마음으로 읽었다면 구태여 이 자리에서 다시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는 여러분들 뒤편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맡긴다. 필자로서 구태여 한마디 한다면 사법부의 신뢰회복의 길은 역설 같지만 사법부 불신을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법관을 질시하기보다 사회의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법부에 힘을 실어주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고 배려해 주는 것이 그 첫 번째임을 감히 강조한다.